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스물두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스물두번째 주일입니다.

2. 후레즈노 교회 주중 사역안내

중보기도모임: 수요일 오전 11시, 삼방전도팀: 수요일 오후 1시

3. 성경공부 안내

성경공부 모임 10월22일(토) 새벽예배후 모임입니다.

4. 10월-11월 행사안내(담임목사 일정)

10월24일-27일: Partner in Ministry Conference: LA

11월12일(토): 북가주 평신도훈련(산타클라라교회)

11월19일(토): Charge Conference

5. 공천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모임

공천위원회: 10월16일 예배후 모임입니다.

(담임목사 홍윤기, 안광빈 윤문섭, 장영심 김현덕 임동재 김형기, 최미란, 구자홍)

재정위원회: 10월23일 예배후 모임입니다.

(담임목사, 구경숙, 김의숙, 최승희, 안광빈, 홍윤기, 윤문섭, 김현덕)

6. 정기임원회의

2016년 마지막 10월30일(주일)에 정기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과 각 임원들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0월16일	장영심 집사	김의숙 집사	김규현 김형기 윤문섭
10월23일	최성보 집사	장영심 집사	홍윤기 구자홍 안광빈
10월30일	이용숙 집사	최성보 집사	임동재 최성보 김현덕
11월06일	김현숙 집사	이용숙 집사	김규현 김형기 최승희
10월안내	임정원 한순옥	10월춧불점화	김형기 김현숙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서두름과 신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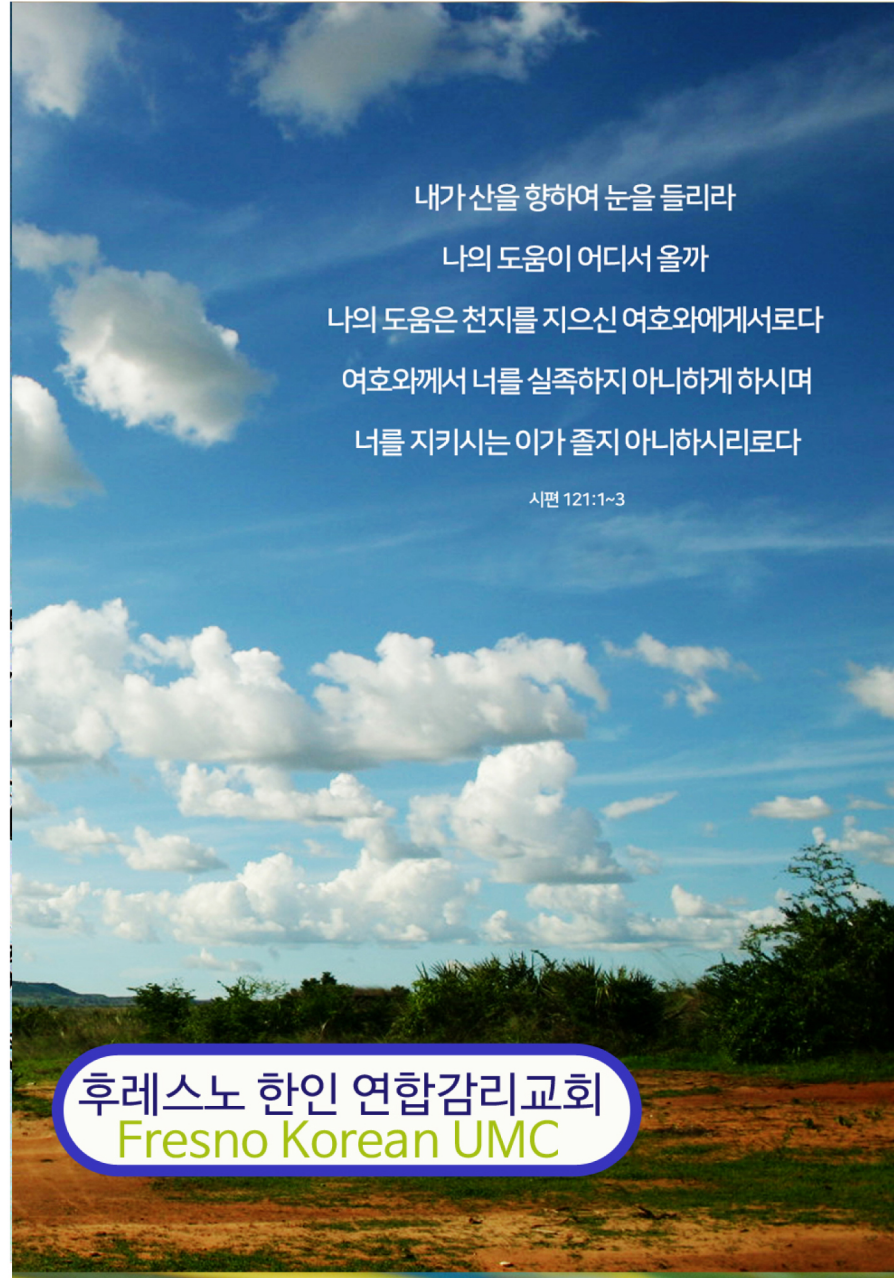
조선 최초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선교사였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선교사입니다. 그중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는 120년째 한국에 머물러서 대를 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3대째인 피터 언더우드는 실력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애정을 담고 한국에 대해서 비평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위주의 건설산업이 주를 이룰때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서둘러 신속함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긴회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시대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합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자의 눈에는 한국의 위태함은 서두름, 그리고 신중함이 결여된 가치판단과 경제계획, 사업계획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을 내린것입니다.

얼마전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 문제가 생겨서 생산중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폰 7을 겨냥한 삼성의 무리한 진행이 화를 불러온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그날,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의 등락을 보이며 하루 20조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더불어 갤럭시라는 아이폰과 대등하게 자웅을 겨루었던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주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새로 회장으로 부임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이런 참사를 가져온 것이라는 분석도 보여줍니다.

이외에, 이와 비슷한 조급함이 불러온 참사는 너무 큼니다. 우리야 미국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려하게 진행되어온 4대강 사업도 결국, 그 유지와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용을 쏟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이것을 콕 짚어서, 보통, 미국같은 경우는 강 하나를 시험삼아 공사를 해보고 나머지를 결정하는 것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런 회의와 매뉴얼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떠 안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의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곧 우리들의 기도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1-3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35장 (통50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장영심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8:1-8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505장 (통268)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2.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3.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8. 후레즈노 교회 주중사역을 위해
- 10월 생일자: 엄선영(10/21), 윤성자(10/18), 구본준(10/25) 감사라(10/24) 김민지(10/27)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김형기 김현숙 김혜진 윤문섭 임경희 이하늘 임수호 조옥화 차석준 차경미 무명
감사헌금	구자홍 구경숙 안광빈 안미나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양정식 이수경 최승희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2,600.00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너와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 로버트 모리스

10월 행사

1. 10월1일 (Cal-Nevada Planting church conference)
2. 10월2일 세계성찬주일 연합예배
3. 10월24일-27일 PIM ministry conference

10월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출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1-3

10월 16일 (주일) 오후: 공천위원회
10월 23일 (주일) 오후: 재정위원회
10월 30일 (주일) 오후: 임원회